

■ 금융시장 대공황 ... 주가 1000 붕괴·환율 1500 급등 우려

# 정부 대책도 '하루효과' 공포에 떠는 투자자들

약물같은 종합주가지수 1,000선 붕괴, 환율 1,500원 돌파가 정말 현실화 되는 것일까.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처방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신흥국가들이 잇따라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요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변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패닉(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부정적인 소식들을 부풀려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시장이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헤매고 있다. 투자자들은 탈진한 모습이다.



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가능성 등 이런 악재들이 과도하게 금융시장에 반영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경기 위기가 심화되는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 실적도 나빠질 텐데 바닥이 어디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방' 대책은 없다 ... 인내심 가져야=전문가들은 당장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며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닥이 안 보인다'=23일 국내 금융시장에 전날 이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와 주가 동반 폭락했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전례없이 강력한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없이 추락하는 형국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한때 달러당 1,436.00원까지 치솟았다가 45.80원 폭등한 1,408.80원으로 마감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9월 이후 10년여 만의 최고치다.

정부가 은행들의 외화차입을 지급 보증한다는 조치는 겨우 하루 약효를 발휘했다. 환율은 발표 다음날인 20일 하루 하락세를 보이며 진정되는 듯하더니 이후 사흘 내리 폭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4.88포인트(7.48%) 추락한 1,049.71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장종엔 1,028선까지 내려가며 1,000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26.58포인트(7.92%) 급락한 308.95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저치(종전 2004년 8월 324.71)를 갈아치웠다.

며칠째 정부가 강도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은 해의발(發) 악재

대우증권 고유선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식 준(準)국유화급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더 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며 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도 힘들다"며 "국제적인 공조가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푸르덴셜증권 이영원 투자전략팀장은 "정부가 (경제 위기를) 한 방에 해결할 뻔한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 아프지만 포기해야 할 부분은 감수하면서 대책을 내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애플데이(사과의 날)'를 하루 앞둔 23일 장성고 학생들이 사과껍질 길게 깎기 경연을 펼치고 있다. '사과 먹고 화해하라'는 의미에서 매년 10월24일을 '애플데이'로 지정한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이날 사과 시식회를 갖고 사회복지법인에 사과를 선물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외국인 '셀 코리아'

### 유가증권시장 지분을 29%로 축소

### 코스닥도 작년말 이후 12%로 급감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해 29.46%까지 축소됐으며 외국인 지분율 변동이 높은 종목 주가의 등락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작년말 이후 지난 21일까지 상장법인인 외국인 지분율 증감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은 32.39%에서 2.93%포인트 감소한 29.46%로, 코스닥시장에서는 17.33%에서 4.56%포인트 줄어든 12.77%로 각각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는 전년보다 4개사 감소한 23개사였고 코스닥시장은 6개사 감소한 6개사로 파악됐다.

외국인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전년 대비 각각 27개, 48개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이 5%포인트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든 회사의 주가등락률은 시장 평균치보다 컸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변동과 주가등락률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지분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한 유가증권시장 9개사의 평균 주가등락률이 -27.56%로 코스피지수 등락률 -36.95%보다 9.39%포인트 높았지만 5%포인트 이상 감소한 106개사의 주가는 평균 43.16% 하락해 코스피 대비 6.21%포인트 낮았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외국인 지분율 증감을 보면 흥아해운(8.96%포인트)과 미창석유(8.08%포인트), 사조산업(7.79%포인트) 순으로 늘었고 중앙건설(-22.92%포인트), STX(-22.31%포인트), 대우조선해양(-19.14%포인트) 순으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휘발유 1,500원대 하락"

### 국제유가 16개월래 최저치 여파

OPEC의 석유감산 조치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22일 국제유가는 전세계 원유수요 감소와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의 원유 재고량 증가로 급락해 1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 유 가격이 19개월 만에 배럴당 50달러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값도 ㄹ 당 1천500원대로, 경유값은 ㄹ 당 1천400원대로 각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 증가보다 5.43 달러(7.5%) 떨어진 배럴당 66.75 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3일 이래 최저치다.

23일 정유업체에 따르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목표가격)을 제재하고 있는 '사이버페트로'를 보면 2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GS칼텍스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목표 공급 가격을 ㄹ 당 1천701원에서 1천555원으로 무려 146원이나 인하했다. 또 경유 목표 공급가격도 ㄹ 당 1천557원에서 140원을 인하한 1천417원으로 대폭 낮았다. /연합뉴스

## "올해 전기요금 15% 인상"

### 한전, 내년에 추가로 12~15%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해 15% 올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12~15%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보고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올해 총괄평가와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21.2%(6조3천억원) 올려야 하는 상황이며 정부 보조금 6천700억원과 자구노력 1조2천억원을 반영하면 15%(4조4천300억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내년에도 유연한 가격에 1당 130~150달러로 올해의 90달러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인상요인이 12~15%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물가와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제2금융권 자금 줄고 갈 '휘청'

### 카드사·캐피탈 등 모기업 수혈·회사채 발행 겨우겨우 버텨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카드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자금줄 고갈로 휘청이고 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비용이 경중 뛰여 올랐고 그나마도 돈줄이 말라 조달규모가 크게 줄면서 일부 여신전문회사는 모기업의 자금수혈을 받게 됐다.

은행에서 비롯된 원화 유동성 경색이 제2금융권을 거쳐 대부업체로까지 확산되면서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지주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열 할부 금융사인 우리파이낸셜에 3천억원 규모로 자금수혈을 해주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캐피탈사의 주요 자금조달처인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의 발행이 힘들어지고 은행권 차입도 막히면서 모기업이 자금수혈에 나선 것이다.

할부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캐피탈사의 채권 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 창구가 막힌 상태"라고 전했다.

카드사들은 그나마 채권발행이 가능

하나 조달금리가 8% 중반까지 뛰어올랐다. 삼성카드의 이날 2년 만기 회사채 100억원어치를 금리 8.53%로 발행했다. 이 카드사는 2년물 회사채를 지난 달 16일에 7.48%(200억원), 6월26일에 6.85%(100억원), 4월21일에는 6.00%(200억원)에 각각 발행했다. 6개월 만에 카드채 발행금리가 2.53%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신한카드도 이달 16일에 500억원 규모의 2년물 회사채를 금리 8.45%에 발행했고 현대카드도 이달 20일 발행한 2년물(100억원) 회사채 금리 8.53%를 지급했다. /연합뉴스

## 은행 임원들 수십억 '돈잔치'

### 연간 10조원대 이익금 ... 최고 20억원 연봉 행거

### 주주들에 쥐꼬리 배당 ... 사회기부금도 겨우 1%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된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과도한 이익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7대 시중은행은 연간 10조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벌어들여 주주들에게 수조원대 배당을 지급하고 임원들은 최고 20억원의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3년간 순이익 26조 ... 외국인 주주 퍼주기=우리·에네코·하나·신한·국민·씨티·외환 등 7개 시중은행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총 26조110억원(이익)을 벌였다.

2005년과 2006년 순이익은 각각 8조5천712억원, 8조766억원으로 8조원대에서 작년에는 9조3천63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도 4조4천886억원으로 금융위기에 불구하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 및 가계대출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은행들은 주로 외국인 주주들에게 퍼주고 있다. 7대 시중은행이 2005년부터 작년까지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총액은 6조8천억원이며 이중 외국인 배당금액이 4조4천억원으로 65%에 달한다.

◇국민은행장 연봉 20억원 ... 임원 평균 5억원=은행들은 또 정부가 세

워준 높은 진입장벽 안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임원들에게 최대 20억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국민은행장이 20억2천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을 비롯해 하나은행장(10억800만원), 우리은행장(9억400만원), 신한은행(6억8천100만원) 등 4대 시중은행장의 연봉은 6억~20억원에 달했다.

임원 평균연봉도 국민은행이 5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4억3천100만원), 우리은행(3억3천500만원), 하나은행(1억7천700만원) 순이었다. 4대 시중은행의 감사 연봉도 4억~7억원대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회공헌은 순이익의 겨우 1%=은행들의 빈약한 사회공헌 활동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7개 시중은행들의 지난해 순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1%가 조금 넘어 상상사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게다가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는 은행들도 비용의 30%를 홍보나 마케팅 성격이 강한 문화, 스포츠, 예술 분야에 지출해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총액한도대출 2조5천억 확대 최종 결정

한국은행은 23일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5천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천억원 증액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은 9.11테러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총액한도대출 규모는 2001년 10월 11조6천억원

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2년 10월 9조6천억원, 2007년 1월 8조원, 2007년 7월 6조5천억원 등으로 계속 줄었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이다. 현재 연 3.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기파크	쇼핑몰 경리, 물류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25	010-9966-9009
삼성서비스 동광주지점	동광주 삼성서비스센터 접수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26	062-525-9704
㈜유휴산업	제작관리, 품질관리 정규직 직원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0/28	061-720-1705
㈜HRN	[SK텔레콤]본부장님 비서직 및 114고객상담원(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28	062-529-2671
동림전자	경리/총무/인사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8	062-952-7272
선진해운항공(광주)지점	수출입화물 국제운송 업무 사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0/29	062-951-0431
마너우팅	쇼핑몰고객상담 및 cs업무/포토샵기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9	062-376-3220
㈜이화유리엔터(평동공장)	생산, 조립, 사출, 방열문조립 및 설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9	011-640-5028
삼보니에너지	CSG 태양전지 기술연구 대졸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49-7724
동이에스텍	[화순]기획 및 자금관련 업무 수행	대졸/경력2년	2400~2600	10/31	061-370-2133
AIG순해보험	[AIG 순천 CS센터]제7기 인바운드 상담원(CSR)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1-906-7632
신한포토닉스	자재 수입 및 통관, 자재구매업무 수행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31	062-949-7114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2008년도 하반기 디지털콘텐츠협동연구센터 연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1	061-330-404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같은학교, 학생끼리

##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